

## “2월 공공발주 느는데 경기 하락 이례적”

건설기업 실사지수 4.6P 준 72.0

을 2월 건설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전월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기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2.0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월 대비 4.6포인트 하락했다. CBSI는 대한건설협회 소속 일반 건설사업자들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을 밑돌수록 현재 경기를 비관하는 응답이 낙관하는 비중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통상 2월은 전월에 비해 공공공사 발주량이 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처럼 지수가 하락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 여파가 신규 주택사업을 크게 위축시킨 점이 이 같은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윤종현기자

### ● 새얼굴 ●



#### 박승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박승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권 SOC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 인천 출신. 인천고, 연세대 건축공학과, 미국 퍼듀대 토목공학 석·박사를 졸업. 제29회 기술고시 합격.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주택정비과장, 도시재생과장,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내륙권기획관, 행복청공공건축추진단장, 건축정책관을 역임. 가족은 부인 홍순미씨와 1남. 취미는 등산, 운동.

【원주】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박승기 정책관 임명

제51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사진)이 임명됐다.

▶새얼굴 10면

주현중 전 청장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주=유학렬기자 hyyoo@



**동해 성실 납세자 선정**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4일 동해시청에서 열려 홍성주누가이 비인후과 병원장, 심강섭 엘리시안 호텔 대표, 임승규 동해전문장례식장 대표, 홍진관 대진기계 대표, 김도현 동명종합건설 대표 등이 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선정됐다.

## 박승기 원주국토관리청장



박승기 (55) 원주국토관리청장은 “강원지역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출신으로 인천고와 연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퍼듀대 토목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기술고시에 합격했으며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장, 주택정비과장, 도시재생과장, 동서남해안내륙권기획관, 행복청공공건축추진단장, 건축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박현철